

경기도, DMZ 대성동마을서 '평화나무심기' 행사 ...한반도 평화 염원



식목일을 며칠 앞둔 31일 오전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마을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진 도의원, JSA경비대대 관계자, 대성리 마을 주민 등이 평화 정착을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평화 나무심기 행사에서 영산홍과 철쭉 등 나무를 심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식목일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앞두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북단 비무장지대(DMZ)에 자리 잡은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 마을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하는 '평화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나무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심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진 도의원, 대성동 마을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성동 마을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식목행사가 열린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행사에서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소나무는 물론, 울퉁 DMZ 일원을 아름답게 물들일 철쭉 등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총 1천5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특히 비무장 지대 내 유일한 학교인 대성동초등학교에서 학업에 매진하며 통일과 미래의 푸른 꿈을 가꾸어 가고 있는 어린이들도 참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평화와 통일을 심고 미래를 가꾸는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하루 빨리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되도록 평화와 건강이 넘치는 푸른 경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